

가장 가까이에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 ~ 12절>

[1]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4]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이라 [6]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7]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9]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을 함께 했던 것이 **가족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하면서, **가족 단위로 만나를 준비하였고, 장막을 이동할 때도, 가족 단위로**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하였고,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도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가정 안에서 성장, 성숙하고, 이어져 가게 됩니다.

가족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 가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동역자입니다.

[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4]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이라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때에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할 때, 모세는 자신의 가정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만의 구원의 경험을 가졌지만, 이것이 가정의 구원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함께 하는 가족 없이,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 때에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가장 놀랍고 완벽한 동역자로 가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의 착각은 자신들이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부모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자가 우리를 지킵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2.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10]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하였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갈 곳 없는 모세를 거두어 주었고,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자, 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믿음의 고지(거점)이 되는 것(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지이기도 합니다)**입니다. 가정이 변화되면, 그런 척하며 믿는 수준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고백만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함으로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이드로의 마음을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전해 듣는 것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적인 흉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이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게 하소서.
2. 주님, 우리 식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